

## 목적과 비전이 이끄는 삶

(마28:16-20, 행1:6-9)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 만큼 새로운 힘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2006년을 위한 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삶의 에너지를 만드는 근원입니다. 비전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 두신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목적과 비전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비전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고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집니다. 비전을 품는 교회와 개인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적과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11명의 소수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재정과 건물과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면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움직임들이 기관과 구역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개인의 영혼을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소 그룹과 기관들 속에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 그룹과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양로원도 방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가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땅 끝까지 나아 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지역으로 가야 합니다.